

3. 성경

한글 개역성경 대한 성서공회

King James Version.

Kurt Aland, Matthew Black, Carlo M.Martini, Bryce M.Metzger, and Allen Wikgren, Greek New Testament, Munster/Westphalia : United Bible Societies, 1994.

New International Version.

Zane C. Hodges/Arthur L. Farstad The Greek New Testament(According to the Majority Text): Thomas Nelson Publishers, 1985

4. 사전

J. Behm, "Paraclets"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II, edited by G. Kittel(Grand Rapids: Edermans, 1978)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11h es. S.v. by Behm Edited by G.Kittel translated by G. Bromiley.

Walter Bauer's A Greek-English Lesicon of the New T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 The University of Cicago Press, 1979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와 개인에 관한 연구

신한라

I. 서론

몇 년만 지나면 2천년대가 시작된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내다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약의 복잡한 예식도 없으며 번거로운 절차도 없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많은 모습은 여전히 구약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물론 그 의도가 그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구약회귀의 모습을 가진 것이 많다. 구약을 지나 신약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지닌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아니 가장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인 '성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여기서 먼저 허순길 교수의 글을 인용코자 한다 "현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이분들은 아직도 성전에 대한 구약적인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약적인 틀을 벗지 못하고 있는 로마 천주교의 이념의 잔재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성전의 시대가 아니고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개혁자들은 일찍부터 성전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1) 위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우리에게 성전이라는 단어는 건물(교회당)에 대한 용어로만 이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교회당에 대한 성전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대한 부적절성을 언급하고 싶었고, 신약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를 원한다. 특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

1) 허순길, 『개혁해 가는 교회』, (서울:총회출판국, 1996), 183-184.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신약시대에 성전은 즉 성령의 전이다. 바로 그 성전이 우리이다. 우리 즉 교회와 개인인 것이다. 본 논문은 성령 그 자체의 주석적 접근보다는 방금 언급한대로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와 개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다. 즉 성령론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론적 교회론과 성령론적 구원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에서는 교회의 본질과 성령의 관계를 다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성령의 전으로서의 개인’에서는 구원을 적용시키고 성도를 이끌어 나갈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을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 글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역을 통한 내용의 전개형식으로 진행되어져 갈 것이며, 성전이라는 단어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성전(성령의 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것이다.

II. 본 론

1.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1.1. 교회의 의미

우리가 교회를 언급하기 앞서서 교회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칼 바르트에 의하면 교회라는 말은 주의 집(Kyriake Oikia) 혹은 Kirca란 말이라 한다. 즉 한원형으로 돌린 지역이라는 말에서 이끌어 낸 듯한 용어이다. 여기서는 이 두가지의 해석이 다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즉 “에클레시아”는 집합체를 말한다. 곧 함께 모인 것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말에서 나왔다. 즉, 사자의 호출이나 전령관의 나팔 소리에 모여온 민중의 집합이라는 것이다.²⁾ 칼빈은 교회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하여 그리

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피차간에 주고 받기위하여 모이는 모임이란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³⁾

한편 우리는 신약성경에서는 교회(에클레시아)가 네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첫째로, 그것은 보편적인 교회이다(The universal church). 즉, 산자와 죽은자 모두를 포함한 신자와 전체집단이란 뜻으로 사용된다(엡 1:22, 3:10, 21; 고전 10:32, 12:28; 빌 3:6; 골 1:58).

둘째로 그것은 겐그레아, 고린도, 데살로니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라는 말처럼 특정지역교회(Particular local church)로 사용된다(롬 16:1; 고전 1:2; 살전 1:1; 골 4:16).

셋째로,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일 때처럼, 그것은 특정지역에 모인 신자들의 실제적 모임(Actual assembly)을 의미한다(고전 11:18, 14:19, 23).

넷째로, 그것은 어느 소도시나 대도시에서 소규모의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가정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롬 16:5; 고전 16:19).⁴⁾

하지만 이 개념은 크기에 상관없이 그것은 항상 하나님 백성⁵⁾들이 서로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모임을 뜻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에클레시아(교회)란 용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단체

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956), IV. 1, 3.

4) 데이비드 왓슨, 『교회의 진정한 표상』, 오광만역, (서울:여수문, 1991), 88-89.

5) Hans Küng, THE CHURCH,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6), 115.

여기서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을 한스 쿡을 통해 살펴보자. 신약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이 백성이라는 표현은 어떤 종교적인 강조가 없거나, 또는 평범한 묘사로는 설명할 수 없다. 또는 이 말은 공관복음에서 특별히 마태, 마가, 요한이나,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서 강조되어 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이 백성의 특별한 신분을 강조한다. 어느 복음서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을 주장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에클레시아는 단순히 그것으로 번역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2) 전경연, 『바르트 교의학 개요』,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6), 204-205.

(kahal yahwh)"라는 말의 희랍어 "하나님의 교회(ekklesia tou theou)"가 오늘날 간단히 교회라고 불리워졌는데, 이 말은 "불러나온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다. 에클레시아가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 아무리 종교적 의미를 가미한다 하더라도 - 정치적 집회이지 종교의식의 집회는 아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목적으로 모이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모으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볼 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모임이다.

1.2. 교회의 본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14:17). 더욱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요14:23)"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집을(건물) 짓고 사시겠다는 것이다. 집을 짓고 사신다는 것은 이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동안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움직였다. 따라서 성막은 쉽게 운반되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처소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도록 의도하셨다. 즉 백성의 심중에 있는 죄와 반란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는 성막으로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왔다.⁶⁾

성령께서는 물론 오순절 이전에도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는 했지만, 그들 안에 계시지는 않았다. 성령께서는 구약시대에서는 때때로 어떤 경우에 특정 백성에 게만 임하셨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특권과 책임

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건물 즉 교회당은 하나님의 성전 혹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고전 3:16).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건물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린다. 이제는 매우 실제적인 관점에서 건물은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의 장소로서 필요할 뿐이다. 그러므로 교회건물은 결단코 참된 교회의 본질에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개념과 신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며, 또한 소홀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금의 교회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교회당 중심의 성전 개념은 지양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는 성전의 풍성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1.3. 성령의 교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18에서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은 또한 마태복음 28:19-20에서는 교회의 설립을 명령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설립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가능하게 되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의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설립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떠나서는 교회를 언급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강림으로 말미암아 설립된 것이다.⁷⁾

오순절 사건은 교회론적으로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오순절은 교회를 위하여 있었던 사건이다. 우리는 기독교가 오순절에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설립은 오순절 이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사건 이전에 교회를 설립하셨다면, 신약교회는 전파할 메시지를 결여한 교회로 남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후 신약교회를 설립하셔서 그 교회로 하여금 구속의 복음, 화목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셨다. 신약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사건 이전에 설립되었다면 신약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단체로 남는다.

그리고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설립되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물론 예수님은 오순절날에 신약교회를 설립하신 것을 내다보면서 준비를 하고 계셨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이유는 그들이 신약교회의

6) 데이빗 왓슨, op. cit., 95.

7) 유해부, 『개혁교의학』,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501.

제 2의 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속성취의 사건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의 복음전파를 통해 신약교회를 시작하시기 원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예수님이 사도들을 모으신 것은 신약교회를 설립하신 것이 아니고, 신약교회의 기초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건물의 기초를 가리켜 건물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건물의 기초는 건물을 지탱하는 받침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신약교회의 제 2의 기초이지 신약교회 자체는 아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에 따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 오순절에 설립되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영원한 기초를 놓으셨다.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서 예수님은 오순절 날에 성경을 부어주심으로써 신약교회의 기초를 놓으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마 16:18)고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 실현되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취이다.⁸⁾

1.3.1.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

교회는 성령에 의해 즉 하나님의 힘과 권능에 의해서 채워지고, 생명을 얻고 유지되어지고, 인도함을 얻는다. 교회는 성령에 소유되어지며, 성령에서 기원하고 존재하며 유지되어진다. 바로 교회의 이러한 면에서 교회를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할 것이다.⁹⁾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성령 안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기쁨과 희망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점은 이미 공동체들이 인식했듯이 그들 자신과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문화권에 있는 기타 종교단체들과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¹⁰⁾

이와같이 교회는 하나님과의 영의 업적이요, 표징과 증인인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여된 하나님의 영은 교회 실재의 근거이며 활동의 원리인 것이다.

그러나, 교회와 성령이 이렇게 친밀하고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성령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¹¹⁾ 성령은 교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며, 그리스도의 영이다. 즉 성령은 교회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이다.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교회의 영”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적으로 말해서 성령과 교회를 구별할 줄 아는 교회는 진정한 자유에의 희망을 가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교회는 자유로운 교회가 못된다. 뿐만아니라 성령은 자유로우시다. 성령은 교회에 의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성령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자유로이 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또한 성령께서는 초장소적일뿐만 아니라, 초시간적으로도 언제나 뜻대로 활동하면서 교회법, 교회권리, 교회권력의 최고지배자로 군림하고 계신다.¹²⁾

1.3.2.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기인한다. 바로 이러한 택하심이 그리스도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든다.¹³⁾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단순히 사적인 문제에서 그쳐 버리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에는 모래와 별과 같이 많은 자손으로 큰가족을 형성하신다는 약속이 따른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또한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3:29)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한 자의 집합이다. 교회는 인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과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그곳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다.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어주시심이 인간의 모임을 만들었다. 따라서 사람은 “내가 교회의 존재를 믿습니다”라고 뒤따라 말하지 않고는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¹⁴⁾

우리가 성령안에서 교회가 되었다. 여기서 ‘성령안에서’라는 말은 ‘주 안에서’와 같은 의미이다. 즉 ‘주 안에서’와 ‘성령안에서’는 병행구로 사용된다. ‘주님’께서 이 건물(building)을 함께 붙들어 주시고 기초와 목적을 부여해 주신다. 교회라는 건물

8) 박형용, 『교회와 성령』, (서울: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7), 82.

9) Küng, op. cit., 172.

10) D. Bonhoeffer, THE COMMUNION OF SAINTS, (New York: Harper and Row, 1963), 123.

11) Küng, op. cit., 172.

12) Ibid., 177.

13) 오토 베버,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역, (서울:풍만출판사, 1985), 47.

14) 전경연, op. cit., 205.

은 성령안에서 존재하며 성령을 통하여 주의 영(그리스도의 영)의 효력에 의하여 존재한다. 한 성령안에서 한 몸이 된 그들은(교회) 모두 한 하나님을 섬긴다. 성령은 교회를 완전히 영적인 실재로 만든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초적으로 한 신자들이 짓는 영적인 집으로서의 건물이다. 신자들은 영의집을 짓는다. 그리고 바로 자신들이 건물이 된다.¹⁵⁾ 오로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며 산들이 되었다. 이 건물은 이 땅에 있는 물질적으로 있는 성전이 아니다. 더구나 완전히 영적으로된 전도 아니다. 오로지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성령을 통하여 살고 모든 구성원들은 성령에 의해 충만하여 졌고, 성령에 의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가 되셨으며, 공동체 내에서나 또는 개인 가운데 성령은 승천하신 주님의 행하심이다. 따라서 성령은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길을 신자들에게 여셨다.

1.3.3 교회인 우리

바르트는 “하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의 모든 진지성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¹⁶⁾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charis)로 존재하는 것이며, 성령께서 베푸어주시는 은혜의 선물(charismata)에 의해 건설되어진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서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가 인류가운데서 인간적 활동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자신의 종과 친구와 자녀로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이미 일어났던 화해의 증인으로 살게하시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인간적 활동의 형태로, 즉 인간의 증언과 인간적 호소와 고백이라는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가시적이고, 실재적이다. 인간들이 성령안에서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있을 때 그곳에 보이는 기독교회가 생성한다. 이러한 그리

스도인의 모임은 자연적으로나 인간의 역사적 결단으로 생성하거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불러내심(convocatio)”으로서 존재한다.¹⁷⁾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거하시는 처소요, 집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교인도 소홀히 여김을 받을 수 없으며, 그렇다고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앞세울 수도 없다. 교회는 하나의 연합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연합체는 말씀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여기 이 장소, 이 보이는 집회 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뜻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성령도 아니시다. - 우리가 없이는, 우리밖에 있는 교회는 실제적인 교회가 아니다. 따라서 교회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¹⁸⁾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는 것이다.

1.4 신자들의 어머니인 교회

성령은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세계를 연결시킨다. 성령은 한 편으로는 신자 각자 속에서 사시면서(갈 4:6),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함과 동시에, 교회를 온 세상을 향한 구속선포의 기관으로 삼으신다. 이 점에서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이다.¹⁹⁾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 4권 1장 제목에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라고 쓰고 있다.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게 될 때까지 보호,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언제나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지도와 보호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결국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을 돕기 위해 주신 가시적교회이며, 말씀의 선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신앙의 출생과 양육을 가능케한다고 할 수 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구원의 기관이다. 칼빈의

15) 엡2:21-22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6) 오토 베버, 『칼바르트의 교회교의학』, 김광식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0), 332.

17) 전경연, op. cit., 205.

18) Küng, op. cit., 130.

19) 유헤무, op. cit., 546.

글을 직접 인용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갖기 위하여 교회에 참여한다. 교회는 우리가 일생동안 다녀야 할 학교이다. 교회의 몸밖에서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으며, 교회를 떠나는 일은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기초(Institution)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와 설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으며, 늘 어김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교회와 설교가 권위를 가지기 때문이다(Inst.IV.1.3./1.4).

2. 성령의 전으로서의 개인

2.1. 구원의 적용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개인 성도에게 적용시키는 일은 성령의 고유한 사역이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12:3) 고 말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일이나 2천년전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자신을 위한 사건으로 믿을 수 있는 일들은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다. 성령은 성도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내주하신다(고전 3:16,6:19; 롬 8:9-11). 이처럼 성령은 개인 성도의 구원경험을 가능케 하신다²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인격체이신 성령이 성도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한 것이다(고전 3:16-17, 6:19). 그리고 바울은 성도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확실히 증언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3항에 보면 성령은 "구원의 적용을 이루시는 유일한 동인이시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통해서라고 가르치고 있다(딤후3:5). 또한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증거하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있다고 말하고 있다(갈5:25). 예수님 자신도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요 6:63). 구원은 우리 마음과 삶에 적용시키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시며, 또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칼빈은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효과적으로 연합하시는 때다"(III.1.1)라고 했다. 우리를 하나님과 동질의 존재로 또는 철저한 일체로 만들지 않고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자존성 또는 신성으로 이루시는 특별한 사역이다.²¹

성령의 주된 사역은 믿음을 주시는 일이다. "이는 성령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신적 생명을 불러 넣어 주시며, 그로써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살지 않고 그분의 행동과 격려에 힘입어 살게 하시며, 그로써 그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이다.

즉 구원의 과정속에서 성령의 주된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되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13에서 바울은 이것을 매우 생생하게 피력하고 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전12:13)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여기서 한 몸이라 함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새생명의 전부 즉 새생명이 실현됨도, 새생명이 전달됨도, 더 나아가 새생명의 기원마저도 그 근원은 성령과 그의 사역, 능력 그리고 그의 은사에 두고 있는 것이다.

즉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시다.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라면, 사람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 또한 성령이시다.²²

그런데 성령은 개인적으로 주어지지만 교회 즉 공동체를 통하여 주어지게 된

20) 박형용, op. cit., 92-93.

21) 박희석, 이길상, 『기독교강요 연구 핸드북』,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321.

22) 하워드 스나이드,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영국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7), 103.

다.23)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의 통치하심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하시는 자비하신 능력이다. 성령은 또한 공동체의 모든 일원에게 영구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개인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으로서의 개인의 모습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24)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것은 그들은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결정적이고 주도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하나님이 앞선 부름의 행위 이후에 그리고 개인적 부분에서의 신앙이, 이러한 부르심 이후에 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체에 속하게 된다. 결코 개인 혼자서는 설 수 없고 다만 공동체 내에서만 가능하다. 교회의 시작은 경건한 한 개인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이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25)

정리하면,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효과적인 구원적용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공동체(교회)에 뿐만 아니라 우리 개별적인 인간에게도 대립하여 계시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은 주의 영(고후 3:17), 그리스도의 영(롬 8:9; 벧전 1:11), 예수 그리스도의 영(빌 1:19), 아들의 영(갈 4:6)으로 불리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동참케 될 때, 성령에 동참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안에 있거나 성령안에 있다는 것은 두 개의 별개의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말한다.

2.2. 중생

중생은 언제나 성령의 사역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
거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3-6)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중생은 물과 성령에 의하여 된다고 하셨다. 제일 주요하고 유효한 요인으로서의 성령과 중생의 증거와 표시와 보증으로서의 물로서 중생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중생의 사역에서 성령은 유효적인 원인이 된다. 따라서 중생은 “성령으로 난 것”(요 3:8)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동일한 목적에 대한 말씀이 또 있는데 그 말씀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1:13) 이다. 중생은 피나 육이라고 하는 자연적이고 육적인 방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온전히 거부되고 다만 하나님의 의하여 유효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를 한 것은 육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과 성령에 의해 태어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어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독특한 것이다. 영으로 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며,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다.26)

같은 진리를 주장하는 성경 말씀이 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딤후3:4-7).

23) Küng, op. cit., 162.

24) 롬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25) 고후1:22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26) 존 오웬, 『개혁주의 성령론』, 이근수역, (서울:여수론, 1988), 179-180.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볼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도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사랑에 있다. 이러한 인자하심과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 우리에게 오신 바 되시고 증보자가 되신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증보를 연결시키시는 유효적이며, 직접적인 요인은 성령이시다.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유효적으로 회복되고 중생의 씻음이 되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분이요 중생의 창시자이시다.

중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피중생자요, 하나님의 영은 유일한 동인이다. 새로운 탄생은 완전히 수동적이다. 곧 그가 탄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탄생함을 받는다는 말이다. 영혼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은 모든 마음의 거룩한 행시들 - 예컨대 죄에 대한 슬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등 - 보다 앞서는 것이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연적인 마음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변화는 일어나고야 마는 것이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활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롬9:16) 이 위대한 변화는 점진적이거나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이다. 즉 일순간에 택한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중생시에 성령은 참되고 새로우며 영원히 멸하지 않는 생명을 부여하신다. 곧 '산 영'이었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에게서 비롯된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이다 (고전15:45). 중생이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새롭고 영적이며 초자연적이며 본질적인 원리나 은혜의 성질이 영혼이나 마음, 의지, 또는 사랑에 보여져서 그것을 가진자로 하여금 영적이고 초자연적이며 본질적인 활동과 영적인 순종을 실행할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²⁷⁾ 새로운 기능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영혼의 능력들이 영적으로 변모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와 교제를 유지하게 되는 것뿐이다. 중생시에 성령께서 영적 생명의 원리들을 전해 주시므로 그것에 의하여 중생한 사람은 하나의 영적 동인으로써 활동하고 초자연적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우리의 중생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있

다. 중생의 놀라운 면은 영혼을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영적 생명으로 이끌어 내는데 있다. 그것은 무에서 무엇인가를 내는 새로운 창조이다. 중생이란 물과 포도주를 만드는 것과는 다르며 오히려 어떤 것을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겔 36:26), 이리를 어린 양으로(사 11:6)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성령께서 한 심령을 중생시키실 때에는 그의 놀라운 능력이 행해질 뿐 아니라, 그의 복된 사랑도 함께 나타난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그의 은혜로운 직임을 수행하시며, 그들 속에서 일하시는 가운데 영광을 상속받을 자들을 향한 그의 사랑이 말로 다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보여 주신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곧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리며, 우리로 영원하신 언약가운데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와 함께 지내기에 알맞도록 영적 능력들을 부여 주시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그의 사역의 영원한 덕과 효용을 완전히 알고 계시며, 또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한 대속물로 바치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으며,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얼마나 무한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 성부와 성자께서 이 위대한 구원을 모든 택한 자들에게 계시하고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께 맡기셨으므로, 성령께서는 자신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은혜의 풍성함으로 적절한 시기에 모든 영광의 상속자들 속에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단 한번의 활동으로 심령을 거듭나게 하며, 중생한 사람은 그 사역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들의 나라로 옮겨가게 된다. 이러한 영적 탄생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 선물과 하늘의 축복들을 참되게 볼 수가 없다.

2.3. 그리스도와의 연합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밖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가 그와 떨어져 있는 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가 당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²⁸⁾

27) 아더 핑크, 『성령론』, 지상우역, (서울:엠마오, 1986), 86.

그리스도의 연합과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갖는 상호 연관성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실 수 있는 것이다.

신약은 이 놀라운 진리를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될 수 있다는 진리를 두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때때로 신약의 저자들은 믿는 자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됨을 가르쳐 주는 그 유명한 성경구절이 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그러나 또 어떤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신약의 저자들은 가르치고 있다. 갈라디아서 2:20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한 사도 요한의 글에서는 이 두 개념 -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안에 계신다는 것 - 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형태의 표현들은 교체적으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임이 분명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또한 우리안에 계신 것이다.²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시는 끈은 두가지인데, 그리스도편에서의 성령님과 우리편에서의 믿음이다. 그리스도편에서의 성령은 영적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며,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신다. 이렇게 살리심을 받으면, 우리편에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으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잡힌바 되어야” 한다(빌 3:12). 생명의 원리가 먼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믿음의 생명이 있는 행동이 행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 속에 계시며, 신자들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안에 있게 된다. 그리스도는 내주하심을 통하여 신자들 가운데 계시고, 신자는 심기워짐을 통하여 그리스도안에 있게 된다(롬 6:3-5).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있으나 편재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을 연결시켜 주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자로서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속에 내주하시는 분으로서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가시적 ‘교회’의 일원일 수도 있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함으로써 외형적으로 그에게 연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연합을 맛보지 않는 한, 우리는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만다. 성령께서는 중생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시지만, 그들은 반항하고 거부한다. 그러나 중생한 모든 자들 속에서는 그가 거하신다. 거기서 거주하시며 다스리신다. 그는 마치 자기 집에 있는 사람처럼 그 속에 언제나 계시며 그 곳을 지배하시는 것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히 1:9) 또한 그에게서 나온다. 성령은 증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았다(행 2:33).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신 결과로 성령이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은 그리스도안에서는 본질로서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는 역사하심을 통하여 거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는 “그 아들의 영”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생수의 샘이시므로 그로부터 모든 은사와 은혜가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며, 성화시키시고, 보존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영광스런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주께 연합되었다’고 결론지어도 무방할 것이다. 이 사실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17:22-23)라는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인성의 ‘영광’은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었다. 그 연합은 성령을 통해서였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영광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저희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계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줄이 되시는 것이다.

우리는 중생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 거듭남이라고도 불려지는 중생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께서 먼저 그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산 연합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므로써 한때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살

28) Inst. III. I. 1.

29) 안토니 후크마, 『개혁주의 구원론』, 류호준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92-93.

리셨다.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합이 시작되는 것은 중생의 시점이다. 에베소서 2:4-5은 “공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를 살리셨고”라는 말은 영적인 새 생명을 가리키며 그러기에 또한 중생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은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으로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새롭게 살리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본질상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게 하심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살리셨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일 처음 우리가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되었을 때 중생이 일어난다는 것이다.³⁰⁾

우리는 또한 믿음을 통해서 이 연합을 소유케 되며, 이 연합을 통해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우리를 이러한 생명의 연합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나 이 연합을 소유하며 계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음은 믿음을 통해서만이다. 본질상 우리는 죄에 속박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실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됨을 실현하며 경험케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20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매우 강력하게 표현함으로써 그는 어떤 의미에서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그가 여전히 산다. “내가 육체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인식케 되며, 그 내주하심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자각하며 사는 매일의 삶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2.4. 성령의 열매

성령은 생명과 거룩함을 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영혼 안에서 유지시켜 주신다. 그는 하늘의 은혜들을 전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촉진시키고 진전시켜 주신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땅이 썩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사 61:3, 11)

그렇다. 저 의의 나무들을 심으신 분이 또한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움돋게 하심에 틀림없다. 새로운 성품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 그 자신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지만 전적으로 창조자와 공급자를 의지하여 그 도움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 의하여 맺혀지는 열매는 명백하게 “성령의 열매”로 불려지고 있으며, 그리하여 존귀와 영광은 오직 그에게만 돌려질 수 있는 것이다.³¹⁾

우리는 사역을 행하며 성령은 이를 효과적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열매맺게 하시는 방법이다. 아니 성령께서 우리를 열매맺기에 적합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함으로써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자에 대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심은 곧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심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안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의 은혜들을 모방하여 행하는 것은 오직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났을 때이다. 그리고 이일은 오로지 성령의 주권과 그 효력있는 역사하심 덕분이다.

요한복음 15장은 열매맺게하는 많은 조건들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버지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심을 입음, 그리스도안에 거함,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우리안에 거함이다. 갈라디아서 5장은 열매 그 자체에 대해서 그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베드로후서 1:5-8은 열매의 순서, 혹은 그것이 맺어지는 과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성령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30) Ibid., 99-100.

31) 아더 핑크, op. cit., 311.

스스로를 포도나무에 제지들을 가지에 비교하심에 있어 나무는 몸에 해당되며 생명은 성령에 해당된다. 생명을 보급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다. 아버지께서 그로 말미암아 영화롭게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도 열매도 없으며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연합도, 안에 거함도 있을 수 없다. 주님은 일일이 이름을 들어 어느 열매라고 지정하지 않으셨다. 그가 강조하신 것은 그것이 열매라는 사실, 자기로부터 직접적으로 맺어진 열매라는 사실이다.

성령은 성도들 속에 내주하셔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시며, 능력을 제공하시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 그리고 성령은 권면과 권고로 성도들 속에서 조용하게 사역하신다. 마치 열매의 자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잘익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도 조용하게 그리고 신비롭게 성도안에서 사역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지만 그렇다고 성도들이 순전히 수동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성도들은 이 영적 투쟁의 방관자가 아니요 참여자이다.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갈 5:18)을 수동태로 표현하고, “성령으로 행하라”(갈 5:16, 25)를 능동태로 표현한 이유도 성령의 사역과 성도들의 참여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³²⁾고 볼 수 있다.

2.5. 성화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하여 먼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고난받게 하시고 신비스러운 몸을 준비하시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지체가 되도록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일을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해야 할 복음적인 임무에 대해서 권면하였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5:23)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명령이며, 또한 하나님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어야만 모든 은혜와 임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힘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 위에 임하여야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기도한 사도 바울은 단언하기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하였다. 사람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틀림없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들을 깨끗이 보존시키실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거룩함의 영원한 샘이시고 기초가 되신다. 거룩을 창조할 자는 없다. 다만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은혜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거룩케 하신다.

즉 성화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성으로 되는 일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차례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마음을 주겠다 - 내가 너희안에 생명을 주겠다,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 내가 너희 마음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겠다.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지니라”(참고 렘 31:33, 32:39; 겔 36:26-27). 성화와 거룩하게 됨은 전적으로 이러한 약속에 근거한다.³³⁾

그러나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성화를 두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화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주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여기에 우리가 능동적인 의무, 순종을 해가는 관점임을 깨달아야 한다.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와 우리가 행하는 의무는 모순인 것같이 보인다. 하지만, 성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의무와 하나님의 은혜는 상호 필요한 조건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의무를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주신 은혜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거룩의 명령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권위를 높여야 하며,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일, 의롭게 되는 일, 선하게 되는 일로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다.

32) 박형용, op. cit., 101.

33) 존 오웬, op. cit., 338.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성화의 주체이시라고 교훈한다. 성화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와 함께 담당하신다고 묘사되었다. 예수님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요 17:17)라고 성부께 기도하셨다. 이 구절은 성부가 성화의 주체임을 드러내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예케 하시느니라”(히12:10). 여기 기록된 “징계”는 고난, 역경, 인내와 같은 뜻임을 보여준다.³⁴⁾ 이러한 훈련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을 거룩함에 참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묘사된 훈련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며 또한 하나님은 성화의 방편으로써 고통과 아픔 같은 것들을 사용하신다고 결론 짓는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주체가 되신다고 말한다.

삼위의 두 번째 분이신 그리스도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성화의 주체자로 계시되었다. 비록 성화라는 단어가 디도서 2장 14절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역시 본문은 예수님을 성화의 주체자로 제시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역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고 언급되었다.

성령하나님 역시 우리 성화의 주체가 되신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간구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 . .”(벧전 1:2)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 . .”(롬15:16)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삼위주에 어느 위격의 지칭이 없이 성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묘사되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 . . 원하노라”(살전5:23). 성화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성화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는 역시 우리의 책임있는 참여를 포함한다. 바울은 고린

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고후7:1)고 권면한다. 따라서 성화는 근본적으로 우리 내부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V. 결론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준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 산다.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 계신다. 더 이상 돌로지어진 성전은 필요없다.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성전안에 계신다³⁵⁾

이제 참 의미의 성전은 교회이며, 우리이다. 즉 교회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신다. 교회당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중요하며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인 것이다. 하지만 교회는 피조물이며, 성령께서 다스리신다. 교회는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킨다.

이제 성령은 우리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우리에게만 객관적 사실이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실 때 그것이 주관적 사실이 된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시키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성령은 또한 우리 개인 가운데 계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성화를 위한 권면과 교훈을 주신다. 우리는 성령안에서 삼위와 교제함,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

34) 안토니 후크마, op. cit., 327.

35) Küng, op. cit., 170.

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며, 성령의 전으로서의 개인의 모습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에 의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성령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우리의 모습을 말이다. 또한 우리는 더욱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것을 기대한다.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갈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서적

- 박형용, 『교회와 성령』,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7.
 박희석, 이길상, 『기독교강연 연구 핸드북』,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전경연, 『바르트 교의학 개요』,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6.
 허순길, 『개혁해 가는 교회』, (서울:총회출판국), 1996.

2. 번역서

- 데이빗 왓슨, 『교회의 진정한 표상』, 오광만역, (서울:여수론), 1991.
 아더 핑크, 『성령론』, 지상우역, (서울:엠마오), 1986.
 안토니 후크마, 『개혁주의 구원론』, 류호준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오토 베버,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역, (서울:풍만출판사), 1985.
 오토 베버, 『칼바르트의 교회교의학』, 김광식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0.
 존 오웬, 『개혁주의 성령론』, 이근수역, (서울:여수론), 1988.
 하워드 스나이드,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영국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7.

3. 외국서

- D.Bonhoeffer, *THE COMMUNION of SAINTS*, (New York:Haper & Row), 1963
 Hans Küng, *THE CHURCH*, (New York:Doubleday & company), 197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956